

평생을 한국의 기독교 지성운동을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 인터뷰 현은자(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은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항상 네트워킹에 관심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기독교 학교와 여러 다양한 분야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전부터 계속해 오시던 일이네요.

그래요.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일은 예전과 같지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긴 이후부터 바로 내 앞에 있는 컴퓨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그 도서관에 저장해 둔 기독교적 사고와 학문활동에 관한 책과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도 정보를 찾으시나요?

나는 유튜브 검색은 하지 않아요.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뒤지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지요. 언젠가는 어떤 대학원생이 좋은 웹사이트를 보내주었는데 그 안에서 자료를 찾는데 2시간이나 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보내시곤 하나요?

바로 그 일 때문에 비서가 필요해요.(웃음) 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나는 책들의 목록을 아마존에서 찾고 그 책들의 소개글, 추천글을 찾고 그것을 프린트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자료를 필요로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지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아마존, 혹은 일반 출판사에서도 좋은 책을 찾으시나요?

그럼요. 꼭 기독교 출판사일 필요는 없어요. 좋은 책은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지요. 제가 1965년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책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엔 기독교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어요. 최근에 출판된 좋은 책만 소개한다면,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의 구약의 법을 현대의 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룬 책,

「God, Justice, and Society: Aspects of Law and Legality in the Bible」(Jonathan Burnside, 2010), 역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에 대해 두 명의 사회학자, 마크 레그네러스(Mark Regnerus)와 제레미 웨커(Jeremy Uecker)가 쓴 「Premarital Sex in America」(2011), 기독교 사회학자인 크리스찬 스미스(Christian Smith)가 시카고 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책, 「What Is a Person?: Rethinking Humanity, Social Life, and the Moral Good from the Person Up」(2010)가 있어요. 스미스의 책은 월터스토프가 추천했는데 월터스토프 자신도 프린스턴 대학





MP 3층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사의 검소한 집무실. 각종 책과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두 권 펴낸 적이 있지요. 이렇듯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만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출판사에서 기독교 책을 많이 출판하고 있어요.

그런 책들은 한국 서점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너무 무거운 주제의 책이니까요. 예를 들어 클라우저 (Clouser, 1991)의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인데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독교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신국원 교수님께서 대학생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에서 추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을 찾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40년 이상 해오셨는데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사회와 학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문서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선생님의 비전은 무엇이지요?

저는 소위 '선교사'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선교'라는 이슈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선교사'를 말하고 있지요. 현재 한국의 상황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1950년대의 미국과 흡사해요. 그 때에도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말했지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 IVF의 사역의 초점은 선교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군가를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는 복음주의를 선교와 동일시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선교를 해야 했고, 기독교



사진 좌) 집무실 가득히 차 있는 각종 원서들과 자료들
 사진 우) IVP 서고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웨슬리 선교사의 판매용 원서들. 필요한 분들은 문의해 달라고 웃으면서 직접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인이 아니라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좁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요.

나는 한국에 기독교인으로 온 것이지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해외에 나가서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싶었지요. 나는 선교에 대해 혼자 공부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교회였으므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한국은 내가 전혀 모르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선교사를 통해서, 혹은 친척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쁘게 수락했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나를 한국에 보낸 엔지니어링 회사는 USAID와 관련된 회사였는데 서울 청계천 복개 공사를 위한 오수처리공사(waste water treatment plan)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선교공부를 했다고 하셨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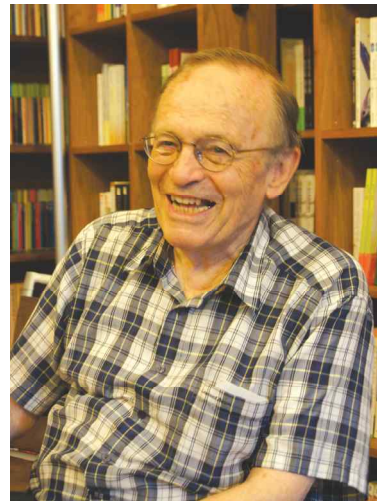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콜롬비아 성경 대학(Columbia Bible College)의 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선교를 공부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에 2년간 있었고 그 후 대학원에서 1년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했지요.(웃음) 그 후 버지니아 공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 고향의 교회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교회였어요. 내가 자랐던 뉴 잉글랜드주의 주요 교회는 거의 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였고, 아마도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대도시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몰두해 있었고 농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는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을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어요. 그들은 비전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대학원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지요.”



촌에선 아주 적은 교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난 중학교에 다니기 전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조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셨지만 아버지는 비기독교인이었지요. 6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12살에 새 어머니를 맞게 되었는데 새 어머니는 교회 일에 매우 열심 있는 분이셨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헌신된 사람이었지요. 즉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분이 나를 교회에 보낸 것은 좋은 미국인이 되기를 바래서였어요. 그 당시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좋은 미국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기만 했어요(웃음). 형은 청년부의 리더였지만 나는 문제아였지요. 버지니아 공과대학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IVF의 회원이 되었고 그 때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그 때에도 내 고향인 뉴 잉글랜드의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보수적이 아니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지요. 교회에는 가지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정통신앙과 자유주의 신앙 가운데서 갈등했어요. 고향에서 같이 자란 사촌형은 제

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미군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지요.(웃음)

내가 8학년 때에 6.25가 발발했고, 나는 그 때 아버지를 도와 도서관 벽에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라디오를 켜고 한국전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회사일로 한국의 청계천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내게 친근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 형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점점 더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대학에 가서 기독교인이 되셨다고요?

그래요. 그 당시 내게는 정통신앙은 무엇이며 누가 좋은 기독교 학자인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 때 「Profitable Bible Study」 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부록에 실린 기독교 서적의 목록을 10번도 더 읽었어요.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대학에서 저의 관심사는 기독교 신앙과 비기독교 신앙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통인가 복음주의의 신

학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기독교적 사고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것인가? 정통 신앙이 왜 자유주의 신앙보다 더 나은가? 였어요. 대학에선 내가 속한 IVF 회원이 스피치 강의 시간에 진화론을 비판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요.

선생님도 그런 발표를 하셨나요?

아뇨, 그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웃음). 나는 쓰기와 말하기를 싫어했거든요. 나는 책을 찾고, 구매해서, 서고에 쌓아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지는 않으시고요? 왜요?

책 읽는데 느려요. 한 마디로 근면하지 않지요. (웃음)

그런데 왜 선생님은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비판하시지요? (웃음)

그것이 학자로서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책을 그들에게 주고 읽기를 바라지요. (웃음)

선생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은 누구인가요?

서울에 와서 6개월 동안 일한 후에 광주 기독교병원이

독일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병원을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자주 광주에 내려가곤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셨지요.

초기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황영철, 김현수, 양성만, 홍병룡, 정세열 같은 분이 내게 매우 의미있는 분들이지요. 손봉호 교수님은 그 당시 그들의 조인자 역할을 하셨지만 주로 그들에 의해 일이 진행되었지요. 그들은 모두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후 교수들이 기독교학문연구회를 맡고 나서 대학원생들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되었는가에요. 그 때의 대학원생들은 현재의 대학원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지요. 그들은 비전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대학원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대학원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COVER STORY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ing)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시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학교' 대신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 학교로 그 개념이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기독교 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신앙을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을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 나는 "너는 손수 네 방을 치우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 방을 청소해주고 공부만 하게 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해요. 현재 서양에서도 그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정에선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신을 책임지도록 가르쳐왔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일을 해서 용돈도 별도 학비도 냈지요.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의 한국 상황은 제가 어렸을 때와는 매우 다르지만, 아이들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제 아들은 인도의 빈민지역에 가서 두 달 이상 선교하고 돌아오더니 혼자 요리도 하고, 청소도 잘 하게 되었지요.

외국으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단 서울의 슬럼에 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거지요. 나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한 번도 안 가보았지만 할렘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2~3일 정도 거리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해요. 학생들은 그 일을 통해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배울 수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살아보는 것도 선교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그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거는지를 배울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거리로 내보내라는 그 제안은 매우 도전적인 것 같네요(웃음). 다시 기독교 학교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좋겠어요.

(웃음)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예를 들어 교육 방송, 학원을 기독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요. 나는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협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기독교 학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부터 생각하지요. 유경상씨가 하고 있는 부모교육이나 청소년 교육같은 사역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상씨의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한 지금 있는 미션 스쿨을 기독교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교목이나 채플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10~15년 이후의 학교 교육은 지금처럼 상자와 같은 교실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가르치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미래의 학교 모습을 생각해야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목이나 채플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의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나는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반틸과 쉐퍼와 같은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학자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요. 기독교적 사고와 행함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들은 서적, Christian Scholars Review(<http://www.csreview.org>), Perspectives on Science & Christian Faith, Journal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http://www.asa3.org/html_pages/PSCF.html), Journal of the Conference on Faith and History(<http://www.huntington.edu/cfh/fides.htm>), 와 같은 학술지들, 기독교철학회(Society of Christian Philosopher)와 같은 조직, 마크 놀(Mark Noll)과 같은 역사 학자, 로버트 우드나우(Robert Wuthnow)같은 사회학자, 칼빈대학, 휘튼대학,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의 기독교 학교 등을 포함하지요. 신앙과 역사 학술지, 기독교 철학회 같은 조직은 기독교 학자에게뿐 아니라 미국학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철학자인 칼빈 대학의 플래팅가, 윌터스토프같은 교수는 미국의 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해달라고,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좋은 기독교적 아이디어를 인터넷에서 찾는 것을 즐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웃음)

야까 선생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와 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나는 그를 격려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료들을 조직하는데 서툰 것과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머지않아 선생님의 76세 생신이시네요. 어떻게 생신을 축하해 드리면 좋을까요? (웃음)

(웃음)생일 축하 파티같은 것은 사양하겠어요. 만일 누가 기독교적 사고와 행함을 논하는 세미나를 연다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겠지만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나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어요.